



문제의 아동 뒤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다

오재호/한국부문화 연구원장, KBS-2R “밤을 잊은 그대에게” MC

“나는 이 사람 성질 때문에 더는 못 살아요. 성질 나쁘기로 동네 방네에서도 소문이 났다고요” 2년 전 일입니다. 두 사람이 저마다 “성적이 안 맞아서 더는 못 살겠다”고 주장 해서 마침내 이혼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속살이 가득합니다. 실제로 그런 속살의 대부분은 속살로 끝나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가령 우리가 알고 있는 장남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장남은 안 좋은 혼인상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매시추세츠 공과대학 생명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사람의 출생서열이 성격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장남은 부모와 권력과 권위를 동일시하고 독단적이며, 지배적이며 야심에 차있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둘째부터는 혁명적 흐름이 강하고, 도전적이어서 장남보다 무려 15배나 더 많이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인물로 진화론의 ‘찰스 다윈’이 그렇고, 지동설의 ‘코페르니쿠스’, 전기를 최초로 발명한 ‘벤자민 프랭클린’, 컴퓨터로 세계를 정복한 ‘빌 게이츠’ 등 이들 모두가 장남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연구 보고서의 참 뜻이 ‘어디에 있었느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장남은 나쁜 유전인자라도 갖고 태어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발표의 핵심은 ‘사람의 성격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환경의 지배’란 ‘부모의 혼인생활’을 지칭합니다.

미국에서는 교사들이 교단에 설 땐 꼭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제의 아동 뒤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닳으라고 한 것은 닳지 않고 절대로 닳지 말라고 한 것은 여지없이 닳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혼인생활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교과서이자 참고서입니다.

부모에게 매질을 당하며 자란 아이는 정상적

인 아이보다 무려 76%나 범죄 가담률이 더 높습니다. 부부가 너무 많이 그리고 자주 부부싸움을 벌이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자란 아이는 각종 정신질환에 정상아보다 무려 53%나 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전적인 모습은 ‘뇌 프린팅’ 효과 때문입니다. 내가 보고 느낀 바를 평생 기억한다는 생리작용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자란 그 아들은 또 자기 아내를 폭력으로 다스리는 광경이 재연됩니다. 이런 ‘뇌 프린팅’ 혹은 ‘학습효과’ 현상은 틀림없이 연출됩니다.

혼인을 앞두고 상대 집안을 살펴보라는 참뜻은 바로 그 집안을 이끌어온 부부의 혼인생활을 살피라는 뜻입니다.

이래서 문제의 아동 뒤에는 반드시 문제의 부모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혼법정이 아니라고 해도 배우자로부터 ‘성적이 나쁘다’고 지적 당했다면 한번 좁은 부모의 혼인생활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땅히 그래야 두번 다시는 이혼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